

시론



조영서 주월초등학교 교사

쉬는 시간, 아이들이 왈칵 신나게 논다. '퍽-', '퍽-' 큰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가 싶어 바라보니 아이들이 딱지치기에 몰두하고 있다. 고작 색종이로 만든 딱지가 대포처럼 큰 소리를 내니 신기하다. 아이들은 색종이와 풀을 이용해 두껍고 단단하게, 견고한 딱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재료는 단순하지만, 자신만의 딱지를 만드는 데 있어 창의력과 노력이 더해진다. 이 과정이 끝나면 아이들은 만들어진 딱지를 가지고, 어디를 얼마 만큼의 힘으로 치면 상대 딱지를 넘길 수 있을지 고민한다. 치고 나서는 결과를 보고 전략을 수정하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화한다. 어른들이 보기에 단순한 놀이 같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몰입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몰입이란, 무엇인가에 완전히 빠져 시간의 흐름을 잊고 높은 집중력과 몰두 상태를 유지하는 경험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적인 과제에 맞닥뜨리더라도 이를 즐기며 몰입한다. 상대 딱지를 넘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요소를 분석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소음이나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때로는 식사도 잊을 만큼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몰입의 상태에서는 평소엔 떠오르지 않던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도 한

몰입의 경험

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다. 이러한 몰입 경험은 어른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부모의 지시에 따라 혹은 외적 보상과 강화에 이끌려 학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몰입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외부 요인이 없어도 그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껴 스스로 배움의 동기를 찾는다.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아이들의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을 크게 신장시킨다. 몰입을 경험한 아이들은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동기를 갖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며, 결국 그 분야에서의 성취도를 높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해냈다'라는 자괴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학업,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몰입의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우선,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와 연관된 과제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야구나 게임 같은 관심사를 수학 문제와 연결시켜 해결하도록 하거나, 국어 시간의 토론 수업을 축구 경기에서 전략을 짜는 과정과 연결해 보는 것이다. 또한 명확한 목표 설정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목표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하면 몰입 상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이때 큰 목표 대신 작은 단계로 나눠 제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다 읽는 대신 하루 20쪽씩 읽기로 목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

고 꾸준한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공하는 것도 핵심이다. 너무 쉽거나 어려운 과제는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현재 능력보다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 도전 의식을 자극해야 한다. 각 아이의 능력에 맞게 과제를 개별적으로 맞춤 제공하고, 과제 수행 중에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몰입 상태에서의 피드백은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받아들이고 즉시 수정하며 성과를 낸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훨씬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양질의 상태로 몰입을 유지할 수 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몰입 경험이 꼭 학습이나 공부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다양한 활동 속에서 쌓인 몰입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더욱 단단한 기반이 된다. 아이가 몰입하는 활동이 단순한 놀이일지라도,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몰입의 과정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몰입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끌어줘야 한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50홈런 50도루를 훌쩍 넘어선 오타니 쇼헤이의 성공 뒤에는 단순한 신체 능력 뿐만 아니라, 몰입을 통해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있다. 그의 철저한 준비와 목표 설정, 그리고 과정을 즐기며 몰입하는 태도는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소화하는 그의 비결이다. 우리 아이들도 몰입을 통해 자신의 열정에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지방소멸 위기 극복 광주·전남 '문화마을' 입법 시급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문화를 토대로 지역이 발전하는 '문화도시' 개념이 알려졌다. 이른바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지구'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도시·지구 사업은 실제론 기초자치단체 수준 혹은 그 이하 문화마을 단위로 진행했고 아바이·백화·녹차마을 등 수많은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추세에 맞춰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해결을 위해 떠나는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한 양상이다. 지역 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소멸이 목전에 닥쳤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일명 문화마을법)은 문화지구 지정 권한을 '문화마을'로 좁혀 기초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특색 있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근거를 담았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마을마다 고유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현대적으로 계승, 청년을 비롯해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유의미한 자원이 풍부한 곳들이 다수여서 문화마을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문화도시 20곳 이상이 지정돼 있는데, 춘천시의 빈집 문화공간 조성, 익산시의 보석산업단지 기반으로 한 보물찾기 축제, 공주시의 그림상점, 부산 영도구의 소설 '파친코'로 보는 문화도시 코스 등 사실상 문화마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문화마을은 소규모 문화시설·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곳으로 정의됐다. 정의원은 무등산 야구용품마을이나 말바우시장 마을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책임지는 '소확행 사업'이다. 작지만 강한 문화마을을 키워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면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정주의식 또한 높아질 것이다. 당면한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이다.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광주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에 쏠린 관심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도 의무비율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광주시는 사회문제로 치닫는 상가 공실로 인한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는 의무비율을 15% 이상으로, 주거용적률(준주택·생활숙박시설 포함)은 400% 이하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3월 조례를 손질해 의무면적을 기존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한 바 있다. 주상복합건물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로 기능하면서 부작용을 양산한 탓에 규제를 강화해 상업시설을 유도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주택 공급 등을 이유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움직임이 지자체 사이에서 일면서 광주 시도 환원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도 같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분기 소규모 상

가공실률은 9.2%, 중대형은 16%로 전국 평균 8%, 13.8%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사업자에게 돌아갈 상당한 혜택을 고려해 공공기여 확대 등의 방안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주거시설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상가 등을 짓지 않아도 돼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상권 활력을 위해 광주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용도용적제한 건물 용도에 따라 용적률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포럼과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1년 여의 검토 끝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이다. 광주에는 옛 방직공장터 등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단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업지역 규제 완화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고



윤준식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차장

전기차 포비아와 안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에어컨 실외기와 자동차가 내뿜는 열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지하에 쌓일 수 있어 전기차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한 과충전 차량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 질수 있다는 우려로 과충전 차량역시도 같은 취급을 하고 있어 전기차 차주와 입주민들 간에 크고 작은 불화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차주든 아니든 '전기차 포비아'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에서 시판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공개된 전기차 제조사 중 저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신차 계약 취소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해당 중고차 구매물의 급증과 차량 가격 하락은 온전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 전기차 보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EU에서 2035년 내연기관차량의 판매중료를 선언했다. 물론 E-퓨얼을 이용한 조건부 내연기관차량은 적거나 유지되나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의 전환은 '탄소제로'와 '자율주행'이라는 시대의 흐름이다. 내연기관이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기차는 전기에너지 기반 구동으로 각종 센서제어를 위한 자율주행의 다양한 기능지원에 효율적이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40~50% 적어진 부품수로 유지관리 용이, 내부 편의 공간 확보 및 소음감소 등 매력적인 요소가 너무도 많다.

이처럼 전기차량의 확대 보급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관계 법령

을 개정검토하고 제조사에서는 전기차 관리 매뉴얼 배포나 AS 마련 등 뒤늦게나마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지만 전기차량 운전자 스스로 전기차량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의 첫 번째는 배터리 관리이다. 과충전의 우려도 있지만 완전방전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완전 방전 시 배터리 용량의 손상과 수명 단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전지장치는 습기나 온도에 민감하기에 다습한 환경에 오래 방치하지 않으며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날 차량 내부온도는 90도 이상 올라가므로 그들이나 실내주차를 권하며 차량 탕탕역시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안전관리 두 번째는 운전습관이다. 전기차 특성상 단시간 고속주행이 가능하다. 습관성 고속주행은 배터리의 과부하 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장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타이머 공기압의 팽창과 여름철 수막현상에 취약해 교통사고 위험 역시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 시 대처 요령이다.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입이 중요하다. 하지만 진입이 어렵다면 신속한 대피와 주변 알림, 관계기관 신고가 중요하다. 여름철 침수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역시 무시할 수 없기에 만져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은 확실히 숙지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내연차에서 전기차의 과도기에 살고 있다. 앞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은 안전에 대한 우려 역시 종식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전기차에 대한 '나부터'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제 2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2024년 8월1일 오전 6시경,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돼 화재 발생 시 열폭주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즉시 진압하기 어려워 진압에만 무려 5시간 이상 소요됐다. 그 결과 지하 주차 차량 800여대 이상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고, 다수 세대에 전기와 수도공급이 중단돼 이재민은 822명 이상이 발생했다. 지금도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밤낮으로 기본적인 욕구에 설 새 없이 고통받고 있다. 불미스럽게도 올해 6월 말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 공장(1차전지) 화재로 22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기에 전기배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쉽사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인천 화재 피해가 이토록 커지게 된 직접적인 영향은 아파트 관리자의 스프링클러 작동 판단 착오지만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에 리튬이온배터리(2차전지) 내 분리막 손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배터리 내 전해질의 기화로 발생한 가스가 배터리 내부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압력으로 분리막이 녹고, 누전의 한 종류인 쇼트(합선)가 일어나 '열폭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름철 아파트나 마트 지하주차장은

그래픽 뉴스

강남 산후조리원 최고가 1천700만원...서울·경기에 56% 편중

전국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별 접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민간 436곳, 공공 20곳으로 모두 456곳이었다. 이 중 145곳(31.8%)이 경기도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12곳(24.6%)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전체의 56.4%가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7곳(1.5%)이었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14개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산후조리원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곳으로 일반실 2주 이용 기준 가격이 1천700만원에 달했다. 가장 저렴한 곳은 충북에 있었으며 130만원으로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 2019년 대비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광주가 25만원에서 지난해 370만원으로 4년 새 64.4%가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독자투고

최근 SNS에서 청소년들 사이 '챌린지(challenge)'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와 관련된 위험천만한 챌린지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불하트 챌린지'로, 가연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스프레이를 이용해 바닥이나 벽에 하트를 새긴 뒤 불을 붙인다. 이는 에탄올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함유돼 주변

청소년들 사이 번지는 위험천만 '챌린지' 주의

에 불이 번질 때 소화기 없이 진화가 어렵다. 두 번째는 '스쿨존 챌린지'로, 주행 중인 차량의 앞을 기웃거리며 운전자를 조롱하거나 스쿨존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인증샷을 찍은 후 SNS에 올린다. 이 밖에도 '일시 정지 챌린지', '단월드 챌린지' 등 자칫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챌린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한 '챌린지'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현채·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